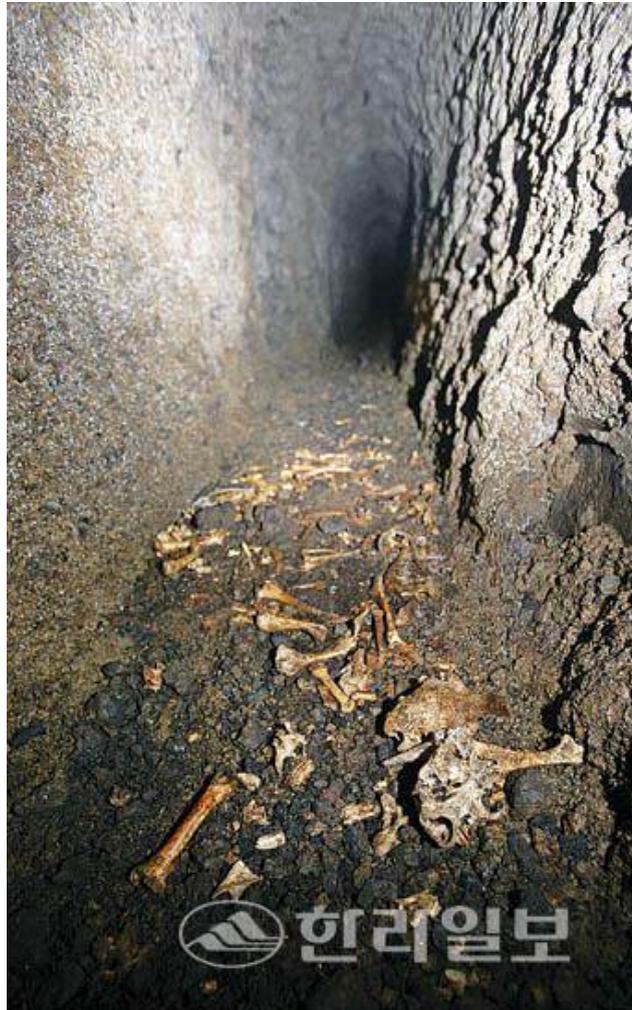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84)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24 2) 96사단 주둔지 (20)명도암과 293연대
오름 곳곳 갯도 구축... 일본군 요새화

입력 : 2007. 11.08. 00:00:00



▲안세미오름에 구축된 일본군 갯도내부 바닥에 흩어져 있는 동물뼈잔해. 이 갯도는 길이가 1백여m에 이른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오름 사면따라 1백m규모 갯도 등 15곳 산재 입구 대부분 함몰·훼손 가속화 ... 조사 시급

1945년 8월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이 패전시까지 제96사단 1만여 병력은 제주도 북부지역에 주로 주둔했다. 일본군 96사단 사령부는 제주시 산천단을 중심으로, 또 292연대는 제주시 산천단 석굴치·동굴치 일대를 중심으로 포진했다. 294연대는 제주시 서부지역인 민오름 남조봉 광이오름으로 둘러싸인 정실마을 일대에 주둔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당시 문헌자료와 취재팀의 탐사 및 증언에 의해 뒷받침된다.

하지만 96사단은 3개 연대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293연대병력이 어디에 어떻게 주둔했는지는 오리무중이다. 과연 293연대는 어디에 주둔했을까.

일본군이 남긴 한 장의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를 보면 제주도 북부 내륙지역인 산천단과 비교적 해안과 가까운 제주시 오라동 정실마을 일대가 주저항진지로 표시돼 있다. 또 하나의 주저항진지는 제주시 동부지역인 봉개동 명도암마을 일대로 나타난다. 산천단과 정실일대의 주저항진지 주변에는 사단사령부 및 연대병력이 주둔해 있었다. 마찬가지로 주저항진지인 명도암마을 일대도 연대병력이 주둔했다. 바로 96사단 예하의 293연대인 것이다.

명도암은 안세미·밭세미오름과 열안지오름·칠오름·노리오름 등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마을이다.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을 둘러싼 오름에는 하나같이 일본군 갱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지금은 대부분 무너져버려 갱도 내부로는 들어가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특별취재팀은 일본군 주둔실태와 갱도진지 구축 상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명도암 일대에 대한 집중 탐사에 들어갔다. 장마로 인한 굶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탐사는 힘들게 진행됐다.

그 결과, 아니나 다를까. 취재팀이 찾은 안세미오름(제주시 봉개동 산2번지 일대 · 표고 396.4m) 동쪽사면에서부터 남사면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파놓은 갱도가 줄줄이 나타났다. 그 수는 15곳 이상이어서 오름 전체가 일본군 진지로 요새화됐음을 가늠케 했다. 갱도를 파내면서 쌓인 토사층으로 볼 때 규모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갱도는 대부분 입구가 함몰돼 있어 내부구조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런데 아쉬움도 잠시, 취재팀은 요행히도 진입이 가능한 갱도 2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남쪽 사면에서 찾아낸 갱도는 길이가 1백여m에 가깝다. 이 갱도는 오름사면을 따라 함몰된 입구가 줄지어 있어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맨 남쪽 입구가 트여있어서 갱도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갱도 내부로 들어가자 밖에서 무너져 내린 입구가 3곳 보인다. 이 갱도는 원래 출입구를 4곳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내부는 폭이 70~80cm 정도 밖에 안되는 좁은 통로가 20여m 이어진다. 한 사람이 겨우 이동할 수 있을 정도다. 숨이 턱 막힌다. 이어 중심부로 추정되는 공간에는 조그만 방이 2개 만들어져 있고 갱도의 폭도 1백50cm 정도로 비교적 넓다. 벽면에는 갱목을 세웠던 흙도 뚜렷이 남아있다. 갱도내부 바닥 3곳에서는 작은 동물뼈 잔해들이 흩어져 있다. 적막한 분위기속에 스산한 기운이 온 몸을 엄습해왔다.

동쪽 사면에서 찾아낸 또 다른 갱도는 20여m 정도의 소형이다. 이 갱도는 내부로 진입하자마자 왼쪽방향으로 유선형을 그리면서 하향 전개된다. 끝부분은 막혀있지만 내부 폭이 3m 이상 될 정도로 넓어 대형갱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있는 갱도는 전체적으로 낚시바늘을 연상시키는 구조여서 눈길을 끈다.

안세미오름의 갱도진지는 제주시 동부지역의 일본군 주둔실태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조사연구를 통한 실체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탐사포커스]제주시 민오름 일대와 유사 형태

안세미오름의 일본군 갱도구축 양상은 제주시 서부지역인 민오름(오라2동 소재)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민오름 일대는 일본군 제96사단 292연대병력이 주둔해 있었다. 이를 보여주듯 민오름 사면 곳곳에는 18곳이 갱도가 구축됐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입구가 함몰돼 진입이 가능한 갱도는 4곳 정도 된다. 일본군 연대병력이 주둔해 있었음을 보여주듯 진입이 가능한 갱도진지 가운데 한 곳은 길이가 1백m가 넘는 대형이다.

지역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민오름의 나머지 입구가 함몰된 갱도도 그 규모는 모슬포 일대의 갱도와 비교될 정도로 상당했다고 전한다.

안세미오름이 소재한 명도암 일대 역시 96사단 예하의 293연대병력이 주둔한데다, 갱도가 15곳 이상 구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갱도는 비록 상당수가 막혀있지만 내부는 서로 연결된 구조로 보인다.

즉 제주시 서부와 동부지역 주저항진지 갱도는 규모와 구조면에서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안세미오름은 나란히 늘어선 밧세미오름을 포함해서 명도오름(明道岳) 명도암오름 조리새미오름 형제봉으로 불리기도 한다. 명도암(明道庵) 김진용(1605~1663) 선생의 은거지로도 잘 알려진 마을로 안세미오름 북사면에는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세미오름에서 찾아낸 일본군 갱도내부를 조사하는 모습 (사진 위)과 안세미오름 동사면 갱도내부에서 바라본 입구.